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4장 22절~44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4장 22절~44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543장(새찬송가 491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44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 헤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나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요셉을 도와 목공소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비교적 단명하였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아우들과 함께 집안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한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관한 소문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조만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진 성경책처럼 장정된 것이 아닙니다.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서 낭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으신 후 맑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랍비적 전통에 따르면 낭독자는 그 자리에 앉아 낭독한 구절에 관련하여 교훈적 강론을 합니다. 예수께서 강론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탄복하다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한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새 그들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냉소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원아, 네 자신이나 고치라’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 낭독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가버나움과 다른 지역에서 행한 이적들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요구하려는 그들의 속셈을 예수께서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큰일을 성취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면 동리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를 상기하면서 무시하거나, 시기심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성경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그릇된 자존심을 깨우쳐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잇달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요약하여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합왕이 왕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온 이스라엘에 바알 신 숭배를 만연(蔓延)시켰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을 대면하여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는 그릇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그릇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지역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과부를 통해 양식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

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여인을 불러 요구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십시오.” “내가 청하노니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두어 개 주어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뭄 기간에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은 이러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절망에 처했습니다. 이전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 중에 한 소녀가 장군의 아내에게 시종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주모에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심부름꾼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행하니 나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하여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만을 돌보시고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옥의 떨감으로 삼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면서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이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무시와 냉소는 마침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폭도가 된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매사에 이성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이 감정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마치 화약 같아서 폭발하면 견줄 수 없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마땅히 통제해야 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무익한 노를 표출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면 후회막급하게 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이성을 잃고 행동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는 그릇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되었고, 그릇된 선민의식

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구릉의 남쪽 경사면의 낭떠러지 위에 위치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 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야기를 언급한 것을 민족 반역행위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전통에 의한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는 형벌 제도(대하 25:12)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험악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다.”라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겐세마네 동산에서 가롯 유다가 인솔하여 온 장정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밀친 것이 아닙니다. 밀친다 하여도 그 많은 장정들을 낱알이 밀어서 엎드러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다.”하는 한마디 말에 장정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린 것은 전능자의 권능으로 하신 일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격분하여 폭도처럼 에워싸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갔으나 주님께서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예수께서 힘이 없고 피할 수 없어서 체포되어 심문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리는 나사렛 북동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복음사역의 본부로 삼아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의 권위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계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유창하게 말해도 말하는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라면 그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말이 좀 어눌하고 표현이 세련되지 못해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다- 이는 설교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경구(警句)입니다. 속된 표현, 욕설, 농담 따위는 결코 설교자의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변명하여 자기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거나 고칠 의향이 없다는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이니 한심한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을 우상숭배와 세속화로 이끄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준엄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선과 거짓으로 백성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욕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며 심판주로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부패한 권력자를 엄중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선지자나 세례 요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책망과 질타를 자신의 막말과 동질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건강부회(牽強附會)입니다. 불경건과 무례의 극치입니다. 폐일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도록 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신의 웅변술과 말재주를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천국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주로 자신의 혈족을 괴롭힌다고 가르치는 것은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말입니다. 무속인 혹은 민속신앙에 영향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있으므로 귀신이라는 용어보다 ‘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신 곧 악령은 사람의 몸과 정신에 침투하여 비정상적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몸이나 정신이 병들면 모두 악령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병드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그러합니다. 육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자신이 주의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하여 육체와 정신은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서에 기록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신유기도를 통한 병 고침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유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딤후 5:23)고 충고했습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로 밀레도에 두었노니”**(딤후 4:20)라는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육체의 가시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심한 안질(眼疾)인지, 간헐적인 두통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혹은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하간 바울 사도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러 번 간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 문제를 지니고서도 잘 견디며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믿고 간구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신유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하여서 약도 의사도 병원도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

생 동안 신유의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되어도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불신이나 구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므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날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즉시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신 기사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완전히 회복되어 즉시 시중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육 간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주의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질 적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께서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나섰다가 만나니 떠나시지 않도록 만류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병든 자들이 치유 받으니 예수님을 자신들만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하여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집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개의치 아니한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부귀공명을 다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 것이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가장 큰 소득과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며 또한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심으로 만사를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